

도서관의 '제3의 물결'

“종이에 의존하는 시대에서 전자공학에 의존하는 사회로 이행되는 미래에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컴퓨터 단말기는 존재하며, 따라서 도서관은 시설로서의 도서관이 아닌 온갖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놓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 도서관의 대표적 논자인 F. W 랭카스터는 자신의 저서 《종이에서 전자공학으로》에서 이와같이 미래 도서관의 기능을 예상하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시기를 2000년대 초기로 못박고 있다. 그는 미래사회가 분명 ‘종이없는 사회(paperless society)’로 이행될 것이라고까지 전망하고 있다.

미래도서관에 대한 저술로 유명한 다른 학자들의 생각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일본의 문헌정보학자 가타기리는 도서관의 미래상을 전망한 자신의 저서 제목을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비유하여 《도서관의 제3시대》라고 붙이고 있다.

또다른 문헌정보학자인 도울린은 자신의 저서 《전자도서관》의 제1장 제목을 ‘제3의 물결은 오고 있는 것인가’라고 정하고 있다. 그는 미래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을 “정보에 대한 접근과 그 보존을 보증하고 강화한다는 의식을 갖고, 데이터·정보·지식을 수집·축적·검색하고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문자문화의 발생과 함께 시작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이집트, 중국, 인도 등의 유적지에서는 파피루스, 죽간(竹簡), 점토판 등 당시 책역할을 했던

도서관의 역사는 인류가 문자를 발명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후 도서관은 제1, 제2의 물결을 거친 후 이제 제3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유물들이 다량으로 발굴되고 있다. 학자들은 초창기 도서관을 ‘문서보관소’에 가까운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도서관에 있어서 제1의 물결이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이후 일어난다. 중세 수도원과 귀족들에게 한정되었던 도서관의 정보 수혜계층은 인쇄술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 확대된다. 도서관을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혁명적 시도가 호응을 얻으면서 한동안 도서관은 보관소보다는 지식의 요람으로 더 큰 입지를 획득하게 된다. 이른바 도서관의 ‘공부방’ 기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다.

1876년 존 듀이가 ‘십진분류법’을 발표할 즈음 대두되기 시작한 도서관의 자료조직에 세계공통의 방법을 적용하자는 의견 역시 보관소보다는 열람에 중심을 둔 생각이 었다.

도서관의 제3의 물결은 컴퓨터의 개발과 보급에 의해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도서관 하면 당연히 책,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을 연상하던 기왕의 생각들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뉴미디어가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이 새로운 시대의 정보환경에 걸맞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중계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했다.

미래의 도서관은 필연적으로 인류의 문화적 산물, 즉 서책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박물관’의 기능과 뉴미디어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창고’의 기능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 도서관의 존재 가치가 확대생산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도서관에 있어 제3의 물결이 출렁대는 시기이다.

국내 도서관 역사도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라 때 왕실문고인 진각성(珍閣省)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장서각(藏書閣)에서 수집과 보관 및 열람을 담당했고,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는 도서관보다는 ‘도서실’의 기능으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왔다.

광복직후 문을 연 국립중앙도서관이 올해로 개관 50돌을 맞았다. 개관 50주년에 즈음한 도서관 관련 세미나에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바로 ‘21세기’라는 단어이다. 우리나라 도서관에도 제3의 물결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제1, 제2의 물결에서 서구에게 선두자리를 빼앗겼다고 제3의 물결의 주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한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해서 도서관마저 후진성을 띠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문화선진국이 되는 첫걸음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출판저널

통권 제180호/1995년 11월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 언
 한동림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욱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살아 움직이는 손길

곧,

책장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

■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